

「なまはげの里」 男鹿

秋田県男鹿市

なまはげは、年の節目の大晦日の晩に、家々を巡り、悪事に訓戒を与え、厄災を祓い、豊作・豊漁・吉事をもたらす来訪神として扱われており、男鹿の伝統的な民俗行事として伝承され、昭和53年には国の重要無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毎年2月の第2金・土・日曜日に、真山神社で開催される「なまはげ柴灯まつり」は、男鹿の冬を代表する観光行事で、神社境内に焚き上げられた柴灯火のもとで繰り広げられる勇壮で迫力あるナマハゲの乱舞は見る人を魅了します。

秋田県男鹿市で「なまはげ」とともにお待ちしております。

※ なまはげ館・男鹿真山伝承館では、いつでも「なまはげ」を体感することができます。

※ アクセス

① 成田空港から

成田空港→(85分)→羽田空港→(60分)→秋田空港からオンデマンドタクシー(95分)

※予約制 →男鹿 → レンタカー(20分)→なまはげ館・真山伝承館

② 東京駅から

東京駅→秋田新幹線こまち(217分)→秋田→JR男鹿線(60分)→男鹿

→ レンタカー(20分)→なまはげ館・真山伝承館

[나마하계의 마을] 오가

아키타현 오가시

나마하계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 월 31 일 밤, 마을을 돌면서 나쁜 행동에 대해 훈계를 하며 액운을 쫓으며, 풍작과 만선, 길사(吉事)를 가져오는 내방신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가의 전통적인 민속행사로써 전승되어 1978년에는 나라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2 월 두번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잔신사에서 열리는 [나마하계 세도마츠리]는 오가의 겨울을 대표하는 관광행사이며, 신사 내부에서 타오르는 큰 불기둥 옆에서 펼쳐지는 웅장하고 박력이 넘치는 나마하계의 난무(舞)는 보는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아키타현 오가시에서 나마하계와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나마하계관/ 오가 신잔 전승관에서는 언제든지 나마하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나리타공항에서

나리타공항→(1 시간 25 분)→하네다공항→(1 시간)→아키타공항에서
온데만도택시*예약필요→(1 시간 35 분)→오가→렌터카→(20 분)→나마하계관/신잔전승관
도쿄역에서

도쿄역→아키타신칸센

코마치→(3 시간 37 분)→아키타→JR 오가선 (60 분)→오가→렌터카→(20 분)→나마하계관
/신잔전승관

[나마하계]는 신들의 심부름꾼.

12 월 31 일의 밤, 각 가정을 돌며 나쁜 행동에 대해 훈계를 하며, 액운을 쫓고 풍작과 만선, 길사(吉事)를 가져오는 내방신으로서 오래 전부터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민속행사입니다.